

##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 간협, 전국 20개 일간신문에 캠페인 광고 게재

광복절 기념해 중앙지 및 지방지에 전면광고

16개 시도간호사회 및 병원간호사회 공동참여

대한간호협회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캠페인 광고를 중앙지 및 지방지에 실었다. 전국 20개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로 게재됐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함께 16개 시도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캠페인 광고는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타이틀 아래 “일제강점기 34인의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져 싸웠으며, 이러한 숭고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간호사로 늘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34인의 이름과 사진, 주요 활동을 실었다.

캠페인 광고는 간호사신문(8월 15일자)에도 실렸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소식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0... 근대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은 전문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았고, 지식인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억압한 시기에 뜨거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고, 구국의 일념으로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은 독립만세운동, 군자금 모집, 적십자활동, 사회운동, 첩보활동, 비밀연락, 독립군 규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군대해산 항전에서 부상병 간호에 헌신했으며, 대한민국에국부인회를 통해 자주독립 의지를 보여줬고, 서울 중도 앞 만세시위를 주도했으며, 간우회를 통해 일제에 항거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중국 상해 등 국외에서도 항일운동가 간호사 양성교육에 힘썼다.

0... 이번 광복절 캠페인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들의 활약상을 되돌아보고, 그 고귀한 이름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 주제로 세미나(2월 27일) 및 특별전시회(2월 26~28일)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간호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다음 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간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0...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일

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⑧-2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실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 간호교육연구회에 참석하고 와서’ 주제로 실린 이기향 서울대 간호고등기술학교장의 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학생 실습지도 간호원에게 교직원 대우 해줘야 교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교재(표본)가 되어야

[제3분과위원회-교수법] 다음 네 가지가 논의의 주제였다. △이상적인 학습태도와 이해방법을 교수하는 법 △기초지식과 실체를 교수하는 방법 △환자의 안락과 안전을 위한 기술교육 △병원실습에서는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 어떻게 원만한 간호를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었다.

[제4분과위원회-대인관계] 간호학생들의 소질을 충분히 발휘 시키며 원만한 품격을 도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들과 매일 접촉이 많은 병원당국자, 간호행정 책임자, 졸업간호원, 의사, 환자 및 환자의 가족 등 각 방면의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 마찰이 없이 소기의 목적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토의되었다.

다음 것들은 학생지도에 특히 고려할 점들이라고 하였다. △교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교재 즉 표본이 되어야 한다. △간호학생 자신들이 의사발표의 기회를 얻는 동시에 타인들의 판단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를 충분히 파악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수치 적당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다. △교직을 위반한 학생은 신중히 고려한 후에 처벌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단체활동의 기회를 줄 것이다. △과도한 경쟁 심리를 자아내는 방법은 삼가야 한다.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병원간호원도 학교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가정적 배경을 숙지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및 교수법을 계획함에는 학생들의 능력, 지도력 등 개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학생지도에 관한 방책과 계획을 의논하는 교수회를 자주 가질 것이다.

△심리학, 사회학을 습득하는 것뿐 아니고 그 지식을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교사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협동 융화의 태도를 시범할 것이다.

귀로에는 동경에 들러 성로가병원과 중앙보건소 등을 견학하고, 그림판 내 나라 김해공원에 안착한 것은 11월 26일 오버(코트)가 생각나는 꽤 쌀쌀한 저녁이었다.

모자리는 사람에게 귀한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며, 여행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당국 특히 보건부와 대한간호협회 여러분과 선배, 전지들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전체 노인의 8.8%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노인이 67만명이었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보장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14%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101만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

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8.8%를 차지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의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4년 6.6%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이었다.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이었

5%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이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0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6조 2992억원(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 대비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108

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전년 대비 11.7% 많아졌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 2000명으로 20.3%, 간호사는 3000명으로 7.5% 늘었다.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은 2만 1290곳이며, 재가기관 1만 5970곳, 시설기관 5320곳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카톡으로 소식받고 카톡으로 확인하자!  
협회 소식이 여러분께 직접 찾아갑니다.

**1. 친구찾기 메뉴 고르기**

상단 검색창 버튼클릭

카카오톡 친구리스트 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터치해주세요

**2. '대한간호협회' 아이디 입력**

ID/플러스친구 검색

아이디 입력란에 "대한간호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친구추가 완료**

친구추가 버튼클릭

친구추가 버튼을 눌러 친구추가를 완료합니다.

**ID : 대한간호협회 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